

近代日本綿業과 植民地 朝鮮

曹 晨 源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그 후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시장에 급속히 진출해 간 면업부문이 식민지 조선경제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었는지를 제품, 원료, 노동력, 자본수출의 네 가지 측면에서 매크로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조선은 종래 지적된 것처럼 일본 면업의 산업자본으로서의 확립과정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기에도 중요한 질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일본 면업의 발전조건을 해명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I. 서 론

전전의 일본 면업이 선발 자본주의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면업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위치에 설 정도로 그 발전이 눈부셨다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다. 국내에 있어서는 원료면화는 물론 상품시장으로서도 그 기반이 취약했던 일본 면업은 그 때문에 당초부터 대외의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더 세계시장과의 관련도를 깊이하면서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완결시킬 수 없는 일본 면업 전개의 이러한 특징은 이윽고 면업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서 '대동아공영권' 내의 자급 = 식민지경제권에 대한 의존이라는 형태로 관찰되어 간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이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케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조선은 이미 일본의 산업혁명기부터 면제품 시장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지녔으며 일본 면업자본의 확립에 불가결한 일환으로서 편입되어 있었다.¹⁾ 나아가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자 즉시 原棉공급지화정책 (= 陸地棉栽培事業)이 실시되어 이후 그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339-700.

1) 山田盛太郎 [49], p. 26.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일관되게 면화증산계획이 추구되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면업자본은 内地(일본)에서의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자 추가적 공급원으로서 조선 농촌에까지 紡織工의 모집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人的인 면에서도 조선을 그 재생산 과정에 편입시켜 갔다. 이러한 일본 면업자본에 의한 조선사회의 포섭과정은 식민지 초과이윤을 지향한 현지 기업진출에 의해 한층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은 일본의 산업자본 확립기부터 패전에 이르는 전 기간을 통해서 일본 면업과 원료시장, 제품시장, 노동력시장, 자본수출시장 등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유지해 갔던 것이다. 이 연구는 위의 네 가지 시장관련성에 관한 가능한 한의 통계와 자료를 이용하여 근대 일본 면업에 있어서 식민지 조선이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 전체적 윤곽을 그려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일본 면업사측에서 본 시각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식민지시대의 조선 棉作綿業 자체의 구조와 동향도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의 棉作綿業의 재편방식을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일본 면업자본의 이해관계였기 때문이다.²⁾

Ⅱ. 제품시장으로서의 조선

원료인 면화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면제품에는 크게 나누어 반제품 면사(綿織絲)와 완제품 면포(면직물)가 있다. <표 1>로부터 우선 면포시장으로서의 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 일본의 면포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만 엔을 넘은 1893년 시점에서는 홍콩과 중국만이 수출시장으로서 중요했지만,³⁾ 이듬해인 淸日戰爭을 기해서 대조선 수출이 본격화되고 1895년에는 조선이 수위를 차지하게 된다. 수출액이 일제에 500만 엔대로 급증하는 1900년에는 조선만으로 63%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이

2) 물론 조선 棉作綿業의 전개구조를 규정한 요인을 오로지 일본 면업자본과의 관련에만 구할 수는 없다. 즉, 식민지권력에 의한 제 정책의 실시, 혹은 특히 戰時期의 군부의 요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요인과 면업자본가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경제가 아무리 제국주의 본국의 강한 규정력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受動態로서 파악하는 것도 일면적이며, 위의 이른바 外的 요인과 함께 조선 자체의 내재적 = 주체적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가치의식·문화적 요인도 또한 중요하며, 경제적 = '합리적' 잣대만을 갖고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지배종속 관계는 '근대'와 '토착'의 相剋관계로서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 요인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 조선 棉作綿業의 특수한 전개구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조선 棉作綿業의 기본적 존재물을 설정한 일차적 규정력으로서의 일본 면업과의 관계에만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

3) 高村直助 [43], pp. 212~213 참조.

<표 1> 日本의 綿布 輸出額과 朝鮮市場

(단위 : 1,000円)

1893	1,110	18	2	3	1920	362,546	27,580	8	
1894	1,861	228	13		1921	243,918	40,245	16	
1895	2,316	956	42	1	1922	252,691	30,639	12	
1896	2,224	873	39		1923	265,966	31,739	12	
1897	2,512	1,295	52		1924	368,524	41,937	11	
1898	2,598	1,236	48		1925	477,264	44,414	9	
1899	3,910	1,620	41		1926	456,377	40,123	9	
1900	5,724	3,615	63		1927	420,242	36,406	9	
1901	5,462	3,292	60		1928	394,982	42,765	11	3
1902	5,998	2,665	44		1929	448,673	35,967	8	4
1903	6,874	2,409	35	2	1930	303,537	31,421	10	
1904	7,743	3,331	43	1	1931	222,255	23,524	11	
1905	11,492	5,235	46		1932	318,914	30,002	9	
1906	15,617	5,010	32	2	1933	427,000	43,785	10	
1907	16,344	6,385	39	1	1934	536,511	44,160	8	
1908	14,611	5,523	38		1935	532,418	36,321	7	3
1909	17,672	4,509	26	2	1936	515,708	32,117	6	
1910	20,462	4,420	20	3	1937	605,444	32,880	5	
1911	28,684	9,005	31	2	1938	429,868	25,629	6	
1912	36,953	11,192	30		1939	414,082	10,136	2	9
1913	43,015	9,409	22		1940	402,186	3,049	1	
1914	43,406	8,562	20		1941	293,616	2,699	1	
1915	47,899	9,338	21		1942	105,186	4,216	4	
1916	73,173	13,122	18		1943	131,508	9,630	7	5
1917	148,108	20,650	14		1944	54,777	6,082	11	
1918	268,640	30,727	11		1945	12,969			
1919	351,195	70,884	20	2					

자료 : 日本紡績協會, 『日本綿業統計, 1903~1949』, 1951年. 村上勝彦, 『日本綿業と朝鮮綿製品市場』 (逆井孝人外編, 『日本資本主義-展開と論理』, 東大出版會, 1978年). 『朝鮮貿易年表』, 各年版. 『朝鮮内地貿易月表』, 1941年.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4卷 2, 10. 1943, 1944년에 의해 作成.

주 : 1) 1910년은 8월의 韓國併合까지의 수출액과 그 후의 同年의 移出額을 加算(단, 「生金巾」·天竺布·白木綿·綿프란넬의 分算)한 것.

2) 1920년 이후는 朝鮮의 日本綿布移入額(1944년의 移入額은 9월까지의 實績).

3) 1)과 2)에 의해 日本의 總輸出額은 修正했음.

후 1909년에 중국에 추월되기까지 조선은 최대의 시장을 제공하였다. 식민지로서의 병합 후에도 조선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지만 제1차대전 붐을 계기로 하는 일본 면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그 상대적 지위는 떨어진다. 또한, 수출의 절대액도 1919년의 7,000만 엔을 최고치로, 그 후는 3,000~4,000만 엔대 수준을 넘는 일 없이 정체기간이 계속된다(단, 수량에서는 1933년의 최고점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일본 면업자본의 조선 진출에 주도되어 조선에서 근대적 면공업이 발흥하는 1930년대 중엽부터 조선에의 면포수출은 급속한 쇠퇴과정을 걷는다. 이렇듯 조선시장은 일본의 산업자본 확립기에 있어서 특히나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시기의 조선시장의 의의가 강조되는 나머지 역으로 그 후의 동향에 대해서는 간과 내지 경시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표 1>에서 주를 달았듯이 『日本綿業統計』에는 대조선 수출분이 1920년까지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조선시장의 위치저하라고 지적되고 있다.⁴⁾ 그러나, 조선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되는 가운데에서도 1910년대에는 20% 전후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전반까지도 아직 약 10% 정도를 계속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기간 수출국별 순위로는 수출시장의 다양화·세분화 때문도 있어서 조선은 거의 2~3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정당히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은 단순한 시장점유율의 문제이지만 여기에 조선시장의 독점적 지배의 의의를 고려에 넣어야만 한다. 전술한 것처럼 일본면포의 대조선 수출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은 동시에 그 때까지 조선시장을 독점해 왔던 영국제품의 敗退과정이기도 했다. 일본면포에 의해 영국면포가 내몰아진 요인으로는 그 품질의 특성, 혹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一因으로 하는 상권지배력의 차이 등이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그 저렴한 가격에 뒷받침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조선시장에서의 일본면포의 우위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격은 서서히 올라갔다. 한일보호조약 이후 특히 강화되는 일본의 상권지배력은 일본면포가 일단 시장제패에 성공한 후에는 그때까지의 저가격에 의한 판매로부터 일거에 독점적 가격설정으로 전화해 가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1906년, 당시 조선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대

4) 幸田祐道 [40], p. 48. 『日本綿業統計』가 의거했다고 추정되는 『大日本外國貿易年表』도 1920년 9월 이후 조선항목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동년의 일본·조선간 관세통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앞의 幸田의 지적은 부정확하다. 덧붙여 지적하자면, 이러한 통계자료의 不備에도 기인하겠지만, 전전의 일본 면업사를 다룬 연구가 식민지기의 조선시장과의 관련에 관해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楊西光速編 [56], 西川博史 [50], 阿部武司 [53]. 물론 阿部 씨의 글은 조선시장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었던 戰間期の産地綿織物業에 관한 연구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西川 씨의 경우는 紡績會社, 그것도 日本帝國主義와 관련지어 논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쉬움이 남는다.

阪紡績・三重紡績・金巾製織 3社에 의해 이루어진 판매 카르텔 三榮綿布輸出組合의 결성은 그 상징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同組合 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金巾, 大紡, 三重的 3社가 鼎立하여 극심한 경쟁을 시작하여 한때 130엔대였던 시세를 107엔대로 폭락시켰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3社의 경쟁은 그칠 줄 몰라 결국 仲買업자인 淸·韓人에게 이익을 壟斷당할 뿐이어서 각 회사의 손실이 점차 커져갔음에⁵⁾…”

위와 같이 상호간의 경쟁격화에 의한 가격하락을 방지함과 아울러 三井物産에의 조합제품 일괄판매(一手販賣) 위탁이나 정부당국자에 대한 재촉을 통한 第一銀行으로부터의 장기저리의 외환자금의 획득 등에 의해 조선 면포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데 있었다. 실제로 이 세 회사는 후에 합병하여 東洋紡績이 되어 식민지기를 통해서 조선 면포시장에서 압도적인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된다.

三榮組合 성립을 계기로 당연히 예상되었듯이 단순한 市價유지를 넘는 면포가격의 독점적 인상이 이루어졌다.⁶⁾ <표 2>는 당시 일본과 영국의 면포 중 각각 가장 대표적인 상표였던 三A표와 BX표의 가격비교인데 三榮組合 제품인 전자의 가격이 후자를 따돌리면서 점차 등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식민지기에 들어서서도 일본 면포는 寒冷紗나 晒金巾(표백한 金巾) 등의 일부 고급 면포부분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까지 영국 제품을 완전히 구축하여 독점적 가격을 유지해 갔다.⁷⁾ 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사실로서 일본면포의 대조선 移出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비쌌다는 점이 吉信齋 씨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⁸⁾ 同씨가 추계한 生金巾 및 粗布의 輸·移出 가격지수를 비교하면 수출단가쪽은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침체 내지 하락한 후, 전시호황의 도래 결과 1916년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이출단가는 상승한 三榮組合의 시장제패를 배경으로 1910년 이후 거의 일관된 더구나 보다 급속한 상승률을 보이며, 1921년부터의

5) 『韓國各地日本棉布概況一斑』 [11], pp. 2~3.

6) 三榮組合 성립 직후부터 그것이 초래한 폐해에 대해 다음의 인용문처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갔으며, 또 그에 대항하는 조선인 綿布商이나 조합의 방적회사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주효하지 못했다. “조합성립 후의 제품을 在來의 면포에 비교하면 품질이 심히 열등하며 一俵당 七八圓의 차이가 있으나 그 판매가는 성립 이전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需用者 특히 韓人의 使用(信用?)을 실추하여 他社 제품을 희망하게 만들었음”, “종래의 가격인 한 個당 百五圓의 것이 순식간에 百三十圓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품질은 현저히 粗惡해지고 또한 三井物産會社의 각 판매자에 대한 태도는 점차 오만에 기우는 경향이 있어 수요자인 韓人 사이의 평도 좋지 않다. … 現今 행해지는 三井物山對 판매자의 계약과 같은 것은 너무 自家收利에 吸吸(汲汲?)한 결과 오히려 그 본래의 취지인 면포판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世評이 있다”([11], p. 8, p. 16).

7) 영국의 晒金巾 및 晒細布는 1920년대에도 상당액이 수입되었으며 1932년에 격감한다.

8) 吉信齋 [44], pp. 39~40.

〈표 2〉 朝鮮의 日·英 生金巾 輸入高와 單價

(단위 : 円, 千反)

1990		5.23	171	388
1901		5.15	190	512
1902		4.85	192	442
1903		5.12	286	408
1904		6.66	281	570
1905	6.50	6.33	323	702
1906	6.25	6.05	318	282
1907	6.50	6.08	471	583
1908	6.93	5.75	458	430
1909	6.31	5.53	393	360
1910	6.64	5.53	591	349
1911	6.85	5.90	877	330
1912	7.12	6.00	1,137	217
1913	7.21	6.30	1,064	92
1914	6.79	6.08	1,030	30

자료 : 稅田谷五郎, 「朝鮮綿布史(其一)」(『大日本紡績聯合會月報』, 414號, 1927年 2月).

주 : 1) 3A(17파운드)는 朝鮮 各地 平均市價(一反當), BX(10파운드)는 釜山 平均市價(一反當).

2) 生金巾 輸入高에는 粗布도 포함됨.

가격하락 경향 속에서도 후자쪽이 보다 下方硬直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적인 동향에 대해 吉信 씨는 “이는 이출가격의 독점적인 부당한 상승을 의미하던가 혹은 외국에의 不當廉賣를 국내시장에서의 독점가격과 평행시켜 손실이 없도록 커버하기 위한 것이던가 아마도 그 양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총면포 輸·移出高에서 접하는 조선시장의 비율을 수량 배이스와 가액 배이스로 비교해 보면, 가액면에서의 비중이 보다 큰데, 조선에의 이출면포가 특별히 고급품은 아니었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역시 이출면포의 상대적 고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부터 식민지시장의 독점적 지배가 저가격을 기동으로 하는 일본 면업의 대외경쟁력을 밑받침하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으로 이출되는 면포에는 그 생산주체가, 대규모의 紡績兼營의 織布기업(즉, 방적회사에 의한 면포생산)과 대체로 중소규모인 織布專業의 產地綿織物業의 두 종류의 제품이 있었으므로 대략 그 구성비를 확인해 보자. 〈표 3〉에서 제시한 일본면포의 품목별 이입고로 보면, 압도적 부분이 방적겸영제 면포로 점유되어 있으며 산지

〈표 3〉 朝鮮의 品目別 日本綿布 移入高

(단위 : 1,000평방 야드)

綿프란넬	2,078	2,538	3,460	4,273	4,345	5,039	5,940	8,973	9,472	11,055	11,533	5,423	4,968
牛粗布	50,920	52,798	44,041	31,962	30,191	28,899	27,777	21,254	6,487	3,599	2,202	875	548
生細布	19,265	18,951	21,984	29,427	26,553	30,578	29,269	27,731	20,988	10,895	6,280	2,142	
曬金巾	2,929	8,600	12,790	13,187	12,636	14,886	16,121	16,899	21,161	22,979	24,192	15,147	3,774
曬細布	9,224	10,976	13,033	10,286	12,374	13,265	10,765	11,587	8,992	8,573	3,658	3,199	
白木綿	11,046	10,493	12,574	9,637	8,246	8,218	8,342	7,909	7,997	8,518	8,410	5,357	420
포플린	1,096	898	1,314	662	815	1,398	2,531	3,438	4,712	4,554	2,893	2,940	
小倉織	1,215	841	2,282	1,923	1,848	2,073	3,463	3,164	2,598	2,772	2,487	2,090	
綿포슬린	1,431	1,756	2,586	3,383	3,082	3,360	3,383	3,014	2,737	2,213	1,830	1,161	
生金巾	1,503	1,611	2,008	2,130	2,591	3,053	3,458	3,677	3,289	2,474	2,108	1,385	
진즈	9,798	9,468	18,184	11,016	9,663	12,907	14,653	9,949	6,679	5,115	5,287	1,694	491
太綾巾	8,961	10,560	5,502	8,921	13,079	24,351	31,584	31,917	25,264	25,710	20,677	9,213	
린넨							16,442	17,394	22,501	22,453	16,389	13,920	
기타													
合計	143,445	152,006	169,114	143,520	162,869	196,134	215,297	207,963	174,586	163,497	135,093	92,975	

자료 : 1926-1934年은 宮林泰司, 『朝鮮의 織物에 について』, 1935年, 1935-1938年은 『朝鮮貿易年表』, 1939年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9年.

제품인 白木棉은 전체의 10% 미만으로서 절대량도 점감하고 있다. 한때는 경영회사의 生金巾류를 능가하여 대조선 면포 수출고의 과반을 점유했었던 白木棉이었으나 병합 후에는 저조한 신장률 보여 양적으로는 1919년의 약 177万匹(약 1,593万 평방 야드)을 최고로 이후 이 수준을 넘지 못한다.⁹⁾ 이 표에서는 생략했으나 白木棉 이외의 산지면 제품으로서 色木棉이나 縞木棉(줄무늬 면포)·카스리(かすり)木棉(飛白무늬 면포)이 있는데, 그 이입고는 모두 합쳐 200~300万 평방 야드 수준이므로 이를 포함하여도 산지제품의 비중은 대략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白木棉이 감소경향을 걸어가는 데 비해, 縞木棉·카스리木棉은 주로 재조선 일본인수요를 배경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 1930년대에 약간 증대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지면직물은 초기에 있어서 조선 土布시장에 급속히 浸食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국 일본의 경영면포에 역눌러 시장확대를 실현시키지 못한 채, 기껏해야 그 小幅物로서의 特性 혹은 縞·카스리木棉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手織 제품으로서의 特長을 살리면서 간신히 그 판로를 찾아 갔던 것이다. 이들 산지제품의 생산지별 내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白木棉에 관해 말한다면 明治 말기에는 愛知縣을 필두로 大阪·愛媛 등이 대조선 수출의 중심지였는데, 식민지기에 있어서도 “조선에 이입하는 것은 中國 및 近畿지방산이 많고” 80% 이상이 大阪경유였다는 지적에 미루어,¹⁰⁾ 그 중심적 생산지에 그다지 변동은 없었던 것 같다. 한편, 縞木棉이나 카스리木棉의 경우는 그 종류가 잡다하며, 생산지도 예를 들어 遠州縞·播州縞·久留米카스리·琉球카스리 등 산지 이름이 붙은 제품만으로 판단하더라도 극히 광범한 지역으로부터 이입되고 있다. 이처럼 산지면직물업에 있어서의 조선시장의 의의는, 양적으로는 방적경영 직포기업의 그것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광범한 지역에 걸친 群小 면직물업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아마 수출품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았을 在來木棉으로써, 明治期이래의 수출경험을 가졌으며 식민지가 된 이후 더욱 가까워진 조선시장에 활로를 구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압력을 극복하려 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이입량이 가장 많은 ‘生金巾’ 류의 제조회사별 구성비를 <표 4>에서 보면, 東洋紡績이 44%로 압도적 세어를 과시하여 2위의 鐘ヶ淵紡績과 합쳐 과반을 점하고 있다. 三榮組合 결성이래 東洋紡績은 조선시장에서 ‘항상 超越的 商圏을 확보’¹¹⁾하고 있었다. 앞서 지적한 일본 면포가격의 독점적 성격은 단지 영국 면포의 구축에 의할 뿐 아니라 이러한 東洋紡績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에 근거하고 있었을 것이다.

9) 稅田谷五郎 [22], pp. 3~4.

10) 稅田谷五郎 [22], p. 7. 다른 자료에서도 “朝鮮에 이입되는 것은 尾州, 泉州, 播州 그리고 大阪지방산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 [33], 1925, p. 26).

11) 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 [33], p. 31.

〈표 4〉 朝鮮移入 '生金巾' 製造會社別 移入量(1923年)

(단위: 千反, %)

東洋紡績	517	136	653	44
鍾淵紡績	102	55	157	11
泉州織物	135		135	9
大日本紡績	43		43	3
服部商店	59	1	60	4
溱織物會社	20	31	51	3
天滿紡織	16		16	1
佐藤商店	60		60	4
吉見紡織	64	17	81	5
小田原紡織		21	21	1
기타포함 合計	1,207	287	1,494	100

자료: 〈표 2〉와 같음.

다음으로 면사에 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산업자본 확립기의 일본방적업에 있어 면사의 주요 수출선은 면포와 마찬가지로 중국, 홍콩, 조선이었다. 예를 들어, 조선은 1905년부터 1911년까지 중국에 이은 면사수출선이었다. 그러나, 그 비중은 10% 전후로 그리 크지는 않다(〈표 5〉 참조). 면사시장으로서의 역시 중국이 압도적이며 조선은 '綿布輸出主導型'¹²⁾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기까지 계속되는데 그것은 조선에 있어서의 면사시장의 狹隘함(면직물업 전개의 취약성)과 함께 일본면포에 의한 조선시장 제압의 강고함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방적업은 제1차대전기를 경계로 면사수출로부터 면포수출 중심으로 질적인 발전을 해 간다. 1917년에 후자가 전자를 상회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면사수출고는 수량으로는 1915년, 가액으로는 191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감퇴해 간다. 중국에서의 소위 在華紡(일본자본계)의 발전과 民族紡(중국자본계)의 대두에 따라 同國을 향한 수출이 격감했기 때문이며 1926년 이후로는 중국을 대신하여 인도가 최대의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조선 면사이출고는 증감을 되풀이 하면서도 1935년까지 근소하나마 증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은 1930년대 前半期에는 중국을 앞질러 인도 다음의 제2의 시장이 되며 그 세어도 20~30%대로 높아진다. 공황과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세어 상승이었던 만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1923년의 震災恐慌시에도 일본은 「輸·移入品の 免稅에 關한 緊急勅令」을 1924년 3월까지의 기한부 조

12) 村上勝彦 [57], 1977, p. 247.

〈표 5〉 日本의 綿絲 輸出額과 朝鮮市場

(단위 : 1,000円)

1903	31,418	1,030	3	3	1925	131,599	8,483	6	
1904	29,268	2,196	8	3	1926	79,128	8,412	11	3
1905	33,246	3,252	10	2	1927	45,266	6,472	14	3
1906	35,303	2,052	6	2	1928	33,060	7,166	22	3
1907	30,346	3,413	11	2	1929	33,274	6,519	20	3
1908	20,723	2,696	13	2	1930	19,872	4,840	24	2
1909	31,656	1,674	5	2	1931	12,579	4,069	32	2
1910	46,696	2,520	5	3	1932	27,430	5,884	21	2
1911	43,237	3,024	7	2	1933	21,705	5,993	28	2
1912	56,634	2,953	5	3	1934	35,984	9,500	29	2
1913	73,089	2,092	3	3	1935	45,494	9,621	21	2
1914	80,851	2,296	3	3	1936	44,081	5,737	13	
1915	69,004	2,793	4	3	1937	58,732	3,827	7	
1916	80,906	3,314	4	3	1938	41,130	1,775	4	
1917	113,781	5,642	5	3	1939	71,394	305	0	
1918	162,789	4,489	3		1940	58,442	467	1	
1919	121,636	7,404	6		1941	53,653	680	1	
1920	158,175	3,194	2		1942	6,287	498	8	
1921	84,394	3,826	5		1943	761	410	54	
1922	117,705	2,982	3		1944	2,151			
1923	82,097	3,586	4		1945	126			
1924	116,023	6,413	6						

자료 : 〈표 1〉과 같음.

주 : 1) 1920년 이후는 朝鮮의 日本綿絲 移入額.

2) 順位表示는 其他諸國의 分이 朝鮮보다 작은 때에 한함.

건으로 공포하여 침체에 빠진 방직업에 대한 구제책의 하나로 하였다.¹³⁾ 이와 같은 유사시에 식민지는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며 본국경제에의 종속적 편입과 경기 조절변적 역할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13) 京紡株式會社 [12], p. 77. 조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京紡에게 동조치(면세일본면포의 이입)는 적지 않은 타격을 주어 廣木(=粗布) 一雙(?)당 10余円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京紡의 초기의 경영상태가 결코 양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同社史의 「민족주의적」 톤에 의한 약간 과장된 서술일 것이다.

Ⅲ. 원료시장으로서의 조선

다음으로 일본 면업과 조선면화와의 관련을 살펴보자. <표 6>에 나타나듯이 일본의 방대한 면화소비고에서 차지하는 조선면화의 비중은 겨우 1~2%에 지나지 않는다. 식민지하의 대대적인 면화재배사업에도 불구하고 일본 면업에게 있어 조선은 원료공급지로서보다는 제품시장으로서 한층 무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단, 조선면화의 收買가 조선의 면제품시장 개척·유지의 지렛대 역할을 한 측면(즉, 조선재래의 면직물업으로부터 원료조달부문을 분리시킴으로써 면사 혹은 면포의 상품구매지로 전락시키는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앞의 1~2%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조선진출기업에 의한 현지에서의 면화 소비량의 증대가 이러한 저이출물의 배후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한다.

일본에 이출되는 조선면화의 품종은 미국으로부터 도입·이식된 陸地棉이 중심이며 많은 방적회사에서 주로 미국산 면화의 代用으로서 混用되고 있었다. 물론 좀더 정확하게는 조선산 육지면이 갖는 결점(가장 빈번히 지적되었던 것은 수분과 赤飛가 많다는 점이었다)으로 인해 당초에는 오히려 인도면의 대용품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는 1910년대의 조선산 육지면의 구체적 용도를 전하고 있다.

<표 6> 日本의 朝鮮棉 消費高

(단위 : 1,000파운드)

1916	6,744(0.8)	1929	14,995(1.1)
1917	8,194(0.9)	1930	20,431(1.7)
1918	11,790(1.4)	1931	14,190(1.2)
1919	11,454(1.3)	1932	5,045(0.4)
1920	9,412(1.1)	1933	16,864(1.2)
1921	8,744(1.0)	1934	16,236(1.0)
1922	8,354(0.8)	1935	22,349(1.3)
1923	12,054(1.2)	1936	30,890(2.4)
1924	20,443(2.1)	1937	15,066(0.8)
1925	19,070(1.7)	1938	7,977(0.6)
1926	12,512(1.0)	1939	11,560(0.9)
1927	9,763(0.8)	1940	22,235(2.2)
1928	11,141(1.0)	1941	11,865(1.7)

자료 : 『日本綿業統計』에 의한.

주 : 괄호 안은 日本의 棉花總消費高에 占하는 比率.

“조선 육지면의 素質이 Middling 이상이라 한다면 內地紡績界에서 이를 미국면의 대용품으로서 사용하기에 이를 것을 회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內地紡績界에 있어서의 우리(조선-인용자) 육지면의 위치는 미국면에 훨씬 못미쳐 미국면이 단독으로 40番手(주: 番手란 실의 두께의 정도를 말함)를 방적할 수 있음에 비해 우리 육지면의 대부분은 20番手 이하의 太絲用混棉 재료로서 사용됨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倉敷방적회사는 16番手の 混棉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며, 鐘淵방적회사는 인도면 노-사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16番手の 混棉재료에 적합하다고 칭하며, 尼ヶ崎방적회사는 16내지 20番手の 混棉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¹⁴⁾

그런데 한편에서 조선산 육지면은 스테이플(Staple = 섬유의 길이)이 충분하다고 하는 장점을 구비하고 있어, 일본 방적업이 점차 太絲에서 細絲생산으로 중점전환함에 따라 그 상등품 내지 중등품은 미국면 대용품으로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종래 조선면의 품질은 색이 희고 광택이 있으며 티끌등 기타의 험잡물이 적지만 미국면에 비해 수분, 未熟섬유 등의 혼입 및 赤飛가 많고, 또 섬유가 粗剛하여 撚曲(꼬임-인용자)이 적다는 등의 결점이 있어 彼此(조선면과 미국면-인용자) 서로 보상한다고 여겨져 전적으로 면사의 艶色, 방적원가의 절감 등을 주안으로 하여 구매되어 많은 二流 방적회사 계열이 애용하던 바인데, 근래에 있어서의 면사수요의 정세는 細絲로 급격한 轉向을 보임으로써 자연히 면화의 품등(그레이드)보다도 오히려 방적적 가치 특히 毛筋(스테이플)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 결과, 조선산 육지면의 毛筋이 미국면 표준품에 비해 유리함을 인식하기에 이르러…… 大日本紡 및 鐘紡 등의 일류 방적회사 계열에서도 활발히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용도의 범위는 특등, 일등 및 이등면은 미국면 대용으로 25番手 이상 40番手 내외의 中絲용으로 10% 내지 30%를 혼용함을 보통으로 하는데 이등면은 비교적 赤飛가 많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삼등면 이하의 소위 赤綿은 종래 이류 이하 삼류방적회사에서 太絲용, 즉 인도면의 連繫物로서 혼용되었으나, 최근 면화의 방적적 가치를 극도로 이용하기에 이르자 赤綿 중 삼등면 및 사등면의 상위의 것은 中番手, 즉 20番手 내지 25番手 내외의 방적용으로서 이용가치가 있음이 인식된 결과, 종래 일이등 線綿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류 이상의 방적회사에서도 미국면의 하급품, 즉 Low-Mid 대용품으로서 애용되기에 이르는 중이다. 사등면은 그 폭이 넓고 품위 및 품질 등 심히 구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려우나 상위의 것은 미국면 하급품 또는 인도면 아코강급으로서 취급되고, 중위의 것은 뽕갈 내지 그 이하로 거래되어 漁網용 또는 疊表絲(다따미 께매는 실-인용자)용 등의 最太番手 혹은 이불솜·탈지면 용

14) 三原新三 [21], p. 7.

〈표 7〉 朝鮮棉使用 上位5社

(단위 : 千貫)

1	福島	166	福島	59	大日本	279	倉敷	284	大日本	314
2	和歌山	80	岸和田	46	倉敷	266	大日本	142	出雲	177
3	東洋	68	和泉	40	大阪合同	226	富士瓦斯	82	倉敷	158
4	倉敷	44	鍾淵	31	東洋	116	出雲	67	福島	130
5	攝津	33	日清	31	和泉	87	日清	60	明正	117

자료 : 『綿絲紡績事情參考書』, 各次에 의한.

으로 제공되며, 최하위의 것은 짐포장 충전용 기타에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¹⁵⁾

이처럼 조선산 육지면의 품질은 미국면에 비해서도 결코 손색이 없었던 것인데 오히려 그 절대적 수량의 근소함이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¹⁶⁾ 한편, 조선산 在來棉에 관해서도 수량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그 可紡가치는 인도면보다 높고(30番手에서 40番手까지 방적 가능), 나아가 미국면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방적업자로부터 그 “增産을 열망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의 식민지 면화정책에 있어서 1930년대에 그 때까지 육지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공동판매제도가 재래면에도 확대 적용되게 된 배경에는 세계면화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재래면 품질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면 사용회사를 확인해 보자. 『綿絲紡績事情參考書』에는 조선면화의 소비량 증대를 반영하여 1916년도부터 그 사용회사가 열거되어 있는데(동시에 前년까지 기록되어 왔던 ‘일본면’ 란이 폐지됨) 동년도에는 紡績聯合會 가맹 전 38사 중에서 18사가 조선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 수는 증가해 간다. 지금 이들 회사 중에서 특히 조선면 소비량이 많은 상위 5개 기업을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이 표로부터 최대의 조선면 사용회사는 福島紡, 大日本紡, 倉敷紡이었음이 판명된다. 물론 표시한 이외의 연도에서는 약간의 순위변동이 있지만 수위만을 대략 보면 1920년까지는 福島紡, 1920년대 전반은 東洋紡, 후반 이후는 倉敷紡과 大日本紡과 같은 식이었다. 앞의 인용문에도 있듯이 일류 방적기업에서도 조선면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15) 日滿棉花協會朝鮮支部 [27], pp. 98~99.

16) “최대의 결점은 在來棉과 마찬가지로 수량의 문제이다. 즉,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제품의 통일과 均整을 최중요사항으로 여기는 방적에 있어서, 예정수량의 구매를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인 바이며, 따라서 거래상 그 眞價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日滿棉花協會朝鮮支部 [27] p. 103.

있다. 다만, 동표는 일본내에서의 소비량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조선내 공장분도 포함하면 1930년대 중엽 이후는 東洋紡과 鐘淵紡이 최대 소비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 노동력시장으로서의 조선

일본 면업과 식민지 조선을 관련짓는 세 번째 측면은 노동력 이동이다. 식민지하의 농촌경제의 피해를 배경으로 한 방대한 조선인 노동력의 일본으로의 유출에 관해서는 전 이동인구의 통계적 파악은 물론이고 각 사업장마다의 사례연구의 진전에 의해 일본에서의 그들의 생활이나 노동상황의 실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¹⁷⁾ 그러나, 이제까지는 주로 남자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광산 노동자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섬유산업에서의 조선인 여자 노동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외로 주의를 쏟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¹⁸⁾ 숫자상으로는 적다고는 해도, 일본의 저임금부문을 대표하는 섬유산업 노동자의 더욱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녀들의 존재야말로 일본자본주의에 대한 조선인 노동자의 지위와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문맥에서 볼 때, 방적기업에 있어서의 조선인 여공의 취업상황과 노동조건에 대해 훑어보는 것은 적지않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조선인 여공이 언제부터 일본 방적공장에 등장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늦어도 1911년이었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즉, 동년의 攝津紡績 木津川공장(大阪府)에서 조선인 사용이 개시되었다고 한다.¹⁹⁾ 이것이 조선인 고용의 최초의 공장이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 후 조선인 사용공장의 수는 점차 증가해 갔는데 당초 소규모이고 임시시험적 수준을 넘지 않았던 조선인 사용이 제1차대전 불에 따르는 심각한 노동력부족을 계기로 모집인원의 확대나 기숙사 설치에 의한 장기정착화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²⁰⁾ 그 결과 방적공장이 밀집해 있는 大阪府에는 1922년 당시, 조선인 노동자

17) 근년의 연구속적으로서는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54] 各號를 들 수 있다.

18) 제일조선인 女工에 관한 몇 안 되는 귀중한 기록으로서 方鮮姬·金贊汀 [47], 金贊汀 [46].

19) 小澤有作 編 [52], p. 8. 金贊汀 [46], pp. 44~45 참조.

20) 1918년부터 조선인 모집을 실시하고 후에 '朝鮮紡' 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한 岸和田紡績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歐州大戰의 영향을 받아 內地工業界가 발흥하자 大正七年(1918년 -인용자)경에 이르러 大阪地方의 방적공장에서는 여공의 부족을 감하여 각 회사마다 그 모집난에 따른 결과, 岸和田紡績에서는 朝鮮女의 채용에 著眼하여 大正七年 三月 사무원을 조선에 출장시켜 五十人의 朝鮮女를 모집하고 돌아와 여공으로서 취업시킨 것이다. 이 조선인 여공은 內地人 여공에 비해 농물은 훨씬 낮지만, 食事, 住宅 등에 美味佳良을 원하지 않고 生活程度는 극히 낮으며, 내지인 여공에 비해 임금도 또한 저렴한 한편 비교적 성격이 양호했기 때문에 동년 칠월에 다시 第二回로서 百名의 朝鮮女를 모

〈표 8〉 大阪府下 朝鮮人使用의 主要 紡績工場(1924年 3月 末)

東洋紡績	31				31		31
大阪織物	4	15	3	13	7	28	35
日本紡績攝津工場		96	2		2	96	98
岸和田紡績		106	49	30	49	136	185
同 野村分工場		181	11	18	11	199	210
同 春木分工場		197	8	15	8	212	220
同 堺分工場		180	40	39	40	219	259
小津起業	2	170			2	170	172
大阪紡績	41	182			41	182	223
柏原紡績		35				35	35
紡績工場計	78	1,162	113	115	191	1,277	1,468
기타 工場計	1,279	51	737	15	2,016	66	2,082
合計(56개소)	1,357	1,231	850	130	2,207	1,343	3,550

자료: 朝鮮總督府, 『阪神・京・地方の朝鮮人勞働者』, 1924年, pp. 16~19에서 作成.

주 : 1) 朝鮮人 30人 以上 使用工場.

2) 기타 工場 中에는 事業場도 포함됨(土方 7개, 建築場補助所 1개로서 人數는 389명).

30인 이상 사용공장수가 33개소에 달했으며 그 반수인 16개소가 방적공장이었다.²¹⁾ 〈표 8〉은 大阪府에 있어서의 1924년 현재 조선인 노동자 사용의 주요 방적공장이다. 동표에 의하면 조선인 30인 이상 사용의 「공장」 총수는 56, 동노동자수는 3,550명(그 중 여공 1,343명)을 헤아리고 방적공장만으로는 총 10개소에서 1,468명(그 중 여공 1,27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²²⁾ 여공의 압도적 다수가 방적여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집하여 이를 本分社 4개 工場에 분포하여 취업시키도록 하였다. 이래로 이들 여공의 緣故를 더듬어서 자발적으로 방적여공 직원을 위해 渡來하는 朝鮮女 속출하여, 동사에서는 大正八年 마침내 鮮人남자로 하여금 그 단속을 시킬 필요가 생겨 各本分社에 한 사람의 조선인 감독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후 또다시 다수의 男工 지원자가 와서, 전에 채용한 여공과의 친족인 관계상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그 이래 鮮人男工도 취업시키고 있다. 이들 職工은 최초에는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大正九年 一月부터 職工社宅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그 결과 各所에 散在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은 大正十一年 봄쯤부터 드디어 이곳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기에 이르러 一名 鮮人社宅이라고 칭해지게 되었다”(朝鮮總督府 [31], pp. 30~31).

21) 桶口雄一, 小澤 [52], p. 550.

22) 〈표 8〉의 인용자료에는 1924년 3월 말 현재의 大阪府下 在住朝鮮人 2만 6,848명(그 중 여자 4,627명)의 직업별 내역도 개제되어 있는데, 紡績職工란을 보면 남자 1,138명과 여자 761명으로 합계 1,899명으로 되어 있다. 〈표 8〉의 수치와 부합하지 않으나 원인불명이다.

〈표 9〉 日本各縣의 朝鮮人女子 就勞狀況(1923年)

紡績女工	409	233	148	788	1,578
製絲女工			301		301
機織女工			99		99
其他女工	23	38	31	127	219
以上 計	432	271	579	915	2,197
在住者數	486	346	743	1,389	2,964

자료 : 大阪市社會部調査課 編纂, 『朝鮮人勞動者問題』, 1924年, pp. 116~117에서 作成.

이다. 이들 방적공장 중에서도 특히 岸和田紡績이 눈에 띄는데 동사의 네 개의 공장합계로 787명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가 일명 ‘朝鮮紡’이라 칭해지는 이유이다. 또한, 동표로부터 노동자의 대다수가 기숙사 생활(표의 就職先同居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단, 남자에 한해서는 통근자가 많음)이 판명된다.

이 大阪府를 필두로 하여 제일조선인 여공의 상당부분이 關西지방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로서는 그 공장별 분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요 縣別 취로상황만을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1923년의 和歌山·奈良·愛和·兵庫의 4縣에서 전 여공수 2,197명 중 72%에 해당하는 1,578명이 방적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 4개 縣에 在住하는 조선인 여자의 53%가 방적여공이었던 것이다. 이는 초기에 渡日한 조선인 여자와 방적업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 밖에 九州지방의 富士瓦斯紡績 大分공장도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던 곳으로서 1922년 동공장에는 남녀 포함하여 596명의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²³⁾

이상에서 제1차대전기를 획기로 한 방적자본의 본격적인 조선인 여공 도입과 그 소재지에 관해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자료의 계약상 192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보아 왔는데, 그 후에도 전체로서의 여공수는 더욱 증대해 갔을 것이다. 예를 들어, 大阪府의 경우 1928년 6월 말 현재의 조선인 방적직공수는 3,216명(그 중 여공은 2,985명)으로서 4년 전에 비해 배증하고 있다.²⁴⁾ 昭和恐慌이 한창 진행중이었을 때 실시된 1930년도 國勢調査에 의하면 전국에서 紡績과 製絲(絹絲) 양 부문에 종사하는 조선인 여공수는 9,723명(조선인 여성 有業者 21,116명 중의 46%에 해당)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⁵⁾

23) 古庄ゆき子, 小澤 [52], p. 658(原資料는 『大分新聞』 [2]). 동공장의 출신지(縣)별 직공수에서 朝鮮人은 4위였다. 또한, 沖繩(오끼나와)縣출신 여공이 700명 있었으며 遠隔地로부터의 직공모집이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다.

24) 佐佐木信彰 [55], p. 168(原資料는 大阪市社會部調査課 [16]).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선인 여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적자본에 있어서의 그들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보충적 노동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방적여공과 노동시장에 관해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兩大戰間期の 조선인 노동자의 대량유입에 즈음하여 그 內地 노동시장에 대한 압박, 특히 실업문제 유발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드높아져 갔는데,²⁶⁾ 실제로 그것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조선인 內地移入 제한조치가 취해지게 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⁷⁾ 내지 노동시장에의 ‘악영향’ =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별·시기별로 꼼꼼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실업문제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현실의 진행상황보다는 오히려 장래의 불안이나 그 예방의 견지에 입각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때문에 실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그 경우의 실업문제란 종종 조선인 실업문제를 사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태의 본질적 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²⁸⁾ 그 점에서 다음 인용문은 예외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있어서 그들은 여하한 지위를 점하는가. 그들의 來住에 의해 종래의 內地 노동자는 노동시장으로부터 구축되었는가. 대체로 본다면 조선인 노동자의 來住에 의해 內地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은 그 결과로부터 논할 때에 거의 皆無라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들은 당초 機械職工(주: 단순히 공장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계산업분야의 노동자를 뜻하는 것이 아님 -인용자)으로서, 小工業者 사이에 호황시대의 勞力부족의 당초에는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결코 內地 노동자의 지위를 빼앗은 것은 아니다. 그저 단지 勞力의 부족을 보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불황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한결같이 해소되어 이 시대에 있어서는 內地 실업노동자 때문에 오히려 직업을 빼앗긴 꼴이다. 한편, 조선인 노동자가 최다수를 점하는 土方(토목 노동자), 人夫稼業에 있어서도 그들은 內地 노동자를 구축하여 置換的으로 지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또한 그 결핍을 보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²⁹⁾

25) 小澤 [52], p. 8부터의 재인용. 덧붙이자면 동년의 방적여공수는 昭和恐慌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전술한 富士瓦斯紡績의 소재지인 大分郡 八幡村에 있어서의 조선인 재주자는 동년에 251명에 불과하며(古庄 [52], p. 659), 또한, 大阪府의 경우에는 이미 1929년 말 현재 전년에 비해 818명 적은 2,398명(여공은 2,155명)으로 감소하고 있다(大阪市社會部調査課 [17], 부표4 - 特高課調査).

26) 예컨대, 大阪市社會部勞動課 [15], pp. 45~49 참조.

27) 戶塚秀夫 [60] 참조.

28) 예를 들면, 大阪市社會部勞動課에 소개되어 있는 福田德三의 실업구제 토목사업에 관한 평가를 볼 것.

29) 大阪市社會部調査課 編纂 [18], p. 28.

〈표 10〉 大阪市 推定 失業勞動者數(1933年 5月 1日 現在)

朝鮮人	3,350	120	3,470	2,780	990	3,770	6,130	1,110	7,240
日本人	2,140	70	2,210	10,520	80	10,600	12,660	150	12,810
合 計	5,490	190	5,680	13,300	1,070	14,370	18,790	1,260	20,050

자료 : 大阪市社會部勞動課, 『朝鮮人勞動者의 近況』, 1933年, p. 46에서 作成.

이러한 지적은 적어도 방적여공에 관해서는 그 후의 시기도 포함해서 들어맞는다. 日·朝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의 존재에 관해서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겠지만, 방적 자본이 이러한 저임금의 이점에만 着目하여 일본인 여공과 代替하는 형태로 조선인 여공을 무제한적으로 고용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³⁰⁾ 조선인 고용은 기본적으로 호황기에 있어 노동력 逼迫과 노임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했으며, 더욱이 불황국 면에서는 조선인 여공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통해 불황대책의 일환으로 기능전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한에서는, 일본인 여공의 임금수준에의 영향(=저임금

30) 그러한 이유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방적공으로서 조선인 노동자는 그 기능을 상당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공은 內地人 여공과 伯仲하다는 定評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조선인 노동자가 왜 이 방면으로 발전하지 않는지 한 차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섬유공업 기업자는, 노동자(주로 여공)를 얻는 데 상당히 고심하는 것이 보통으로서,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여공의 賃賃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世人的 기억에 남아 있는 바이다. 그리하여 이 분야의 어느 회사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지한 태도로써 소위 募集地라는 것을 정형하면서 오로지 여공의 모집에 노력하고 있는데, 근래에 남공도 이를 都會에서 구할 때에는 노동조합들의 지배하에 기업자를 위협하는 일이 많아, 이들도 시골로부터 모집하게 된 것이다. 현재 농촌이 피폐하여 各募集地로부터 공급되는 勞力이 심히 많고 덧붙여 섬유공업의 부진은 勞力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애, 실사 조선인 노동자를 使役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 명백해더라도, 한편에서 募集地로부터 공급되는 勞力을 배척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를 使役할 경우에는, 모집법의 募集地도 당장 경쟁자에게 빼앗겨, 사업확장 등의 시기에 있어 不時에 勞力의 결핍을 느낄 때에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궁경에 직면함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자연히 조선인 노동자는 이 방면에서도 疎遠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一面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定住性을 결여하여, 한 명이 귀향할 때에는 그 단체 전 부도 附和雷同의으로 행동을 더불어 하는 것과 같은 점(특히 여공에 對함)도, 기업자가 최대불안으로 여기는 바로서, 앞장서서 조선인 노동자를 使役하지 않는 一原因이다”(大阪市社會部調査課 編纂 [18], pp. 25~25).

“방적공장 직공으로서의 鮮人 노동자에 대해서는 概論하기 어렵지만…지방에 따라서는 土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鮮人과 倭를 짓는 것을 싫어하는 풍조가 있는 결과 오히려 內地人 직공 모집상의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 邦語(일본어-인용자)不通의 점도 處遇上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는 등 일반적인 內地의 이 분야 공장경영자는 그들을 즐겨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호황시대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이 있어도 平成(平生?-평상시) 특히 불황시에 그들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內地工場職工이 鮮人 노동자로 인해 영향다운 영향을 입을 것이라는 점은 현재에 있어 이불 豫斷할 수 없다”(東京地方職業紹介事務局 [19], pp. 26~27).

수준의 유지)은 인정될 수 있지만, 조선인 여공의 존재가 '실업의 輸入'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일본인)실업문제의 부분적 해소에 한몫을 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표 10>이다. 우선 실업 노동자의 총수를 보면 大阪市 실업자의 3명 중 1명이 조선인이었다는 셈이 된다. 인구비중에 비추어 보아 매우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민족별 실업률에 있어 조선인쪽이 훨씬 높았다는 것은 굳이 숫자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아가 부문별로 보았을 때, 남자 기타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인 실업자가 일본인 실업자를 절대수에서도 능가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자 기타노동자에 있어서의 조선인 실업자의 비율이 93%로 극히 크다는 점이다. 그 실태는 주로 방적여공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제시한 직종별 구성비로부터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황하의 방적업에 있어서의 産業合理化가 진전되는 와중에 그 여파를 최초로 받았던 것은 조선인 여공이었던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해고된 여공은 單身渡日의 出稼工의 경우 귀국하던가 혹은 다른 직장을 찾아 각지의 紡績·製絲 공장 등을 轉轉해 갔다.³¹⁾

V. 자본수출시장으로서의 조선

일본 면업에 있어서 식민지 조선의 지위는 당초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서의 이른바 '外地'적 성격을 띤 것에 지나지 않았다.³²⁾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거대 방적자본이 속속 조선에 진출하면서 조선은 종래의 '外地'적 성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되었다. 즉, 조선 현지에서의 방적사 및 면포의 본격적인 생산개시에 따라 일본의 이입 의존도를 저하시키는 한편, 그 때까지의 원료면포의 移出國으로부터 점차 輸入國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자본진출의 주체는 大日本紡과 함께 소위 '三大紡'이라 일컬어지는 東洋紡과 鐘紡이었으나, 여기에서는 먼저 그 이전에 조선에 진출한 일본자본에 관하여 확인한 후에 논하기로 하자.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이미 병합(러일전쟁) 전에 일본인 경영 혹은 日韓人 합동형태에 의한 직포공장이 각지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이 記述史料에서 확인된다.³³⁾ 그러나, 이들 공장은 주로 改良織機(高機, 밧탄, 足踏機 등)를 갖춘 대체로 小規模 經營에 지나지 않았다. 병합 후에도 일본인 공장의 설립은 약간 있었으나, 대자본에 의한 대규모

31) 특히 공황이 돌이닥친 1930년에는 실업한 조선인 노동자의 귀국자수가 격증하였다(金贊汀 [45], pp. 98~99).

32) 殖産銀行 [24], p. 3

33) 예를 들면, 群馬縣第三部 [13], p. 23, p. 25, 澤村東平 [58], pp. 171~172 등 참조.

및 본격적인 機械制(力織機) 공장설립의 효시는,³⁴⁾ 1917년 三井資本系(三井物産)에 의한 朝鮮紡織株式會社 부산공장이었다.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의 최초의 機械制 紡績工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朝鮮紡織 설립의 또 하나의 의의는 종래의 직포공장과는 달리 廣幅 면포(주로 粗布)를 제조한다는 점이었다. 朝鮮紡織의 설립을 계기로 그에 대항하는 형태로 조선인 자본에 의한 京城紡織株式會社가 1919년에, 또 1924년에는 繰棉業을 경영하던 朝鮮棉花株式會社(日本棉花 계열)가 새로이 면포공장을 설립하여, 모두 力織機에 의한 廣幅物을 생산품목으로 하였다. 단, 후자에는 紡績部門은 없었다. 이들 공장들이 조업을 시작한 1920년대 전반(朝鮮紡織은 1922년, 京紡은 1923년) 이후 우선 면포 분야에서 조선내 自給化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다만, 위의 몇 개 회사들의 생산량만으로는 조선의 면포 총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갭이 있었으며, 自給率은 착실히 상승하였으나, 시장확대 속에서 이입면포도 함께 증대하였다. 이입면포를 본격적으로 代替하는 과정은 1934년부터 시작된다. 즉, 東洋紡 인천공장이 조업을 시작하던 해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東洋紡 인천공장의 설립 시점까지 朝紡의 뒤를 잇는 진출기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의 하나로는 당시의 일본 면업자본가의 주된 관심과 노력이 오히려 중국진출쪽으로 집중되고 있었다는 일반적 사정을 들 수 있다.³⁵⁾ 또한, 이 시기의 조선이 방적자본가의 투자의욕을 유발할 정도로 유리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오랫동안 특정의 소수 대기업(특히 東洋紡과 鐘紡)에 의해 구축된 확고한 시장 지배력(브랜드의 명성도와 판매력 등)의 벽이라는 현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선발기업의 압력을 받으면서 朝紡의 경영도 초기 단계에서는 총독부 보조금 지출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³⁶⁾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朝紡이 설립된 경위에는 그 出資者인 三井物産의 조선에 있어서의 역사적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三井物産은 明治期이래 일본의 면화수입, 면제품수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나, 특히 대조선무역에서는 전술한 1906년에 결성된 金巾製織, 大阪紡績, 三重紡績(후에 합병하여 東洋紡이 됨)에 의한 三榮綿布輸出組

34) 실현은 되지 않았으나, 内外綿株式會社는, 1906년 7월의 定期株主總會에서 朝鮮, 滿洲에 대한 진출을 결정하고, 1906년과 19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朝鮮木浦에 공장용부지 總 1萬 4,742坪의 永久借地權을 취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對中國 진출(在華紡)방침에 의해 이 계획은 중지되었다고 한다(内外綿株式會社 [14], pp. 176~177).

35) 在華紡 진출의 실태에 관해서는, 高村直助 [42], 1982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36) 朝紡은 1918년에 補助金 下付願을 總督府에 제출하여, 그 결과 1919년부터 1922년까지 拂入資本金에 대한 年7分 이내의 補助金 지급을 받고 있으며, 그 후로도 1924년부터 1930년까지 여러 번 補助金이 交付되었다(『營業報告書』各次). 補助金 지급의 정책적 의도의 하나는, 조선산 면화의 소비장려에 있던 듯, 總督府와 朝紡 사이에 매년 일정량의 조선산 면화소비의 內約이 있었다고 한다(川合彰武 [39], p. 97, p. 107, pp. 109~110).

습의 제품판매를 일괄 위탁받은 것을 계기로 면포수출에 있어 압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07년도의 조선의 일본 '生金巾' 수입고에서 차지하는 三榮綿布輸出組合 제품의 비중은 88%나 되었으며, 일본의 총면포 수출액의 41%를 三井物産 1社가 취급하였다. 1914년 大阪紡과 三重紡의 합병에 의한 東洋紡 설립에 따른 三榮組合의 자연해산 후에도 三井物産이 同社 제품의 일괄 판매를 계속 떠맡았으며, 나아가 1918년에는 위탁판매제로부터 일괄매입제(一手買取制)로 바뀌게 되었다. 東洋紡과의 이러한 거래관계는, 三井物産 조직으로부터 면관계품 취급부문(棉花部)을 독립시킨 東洋棉花株式會社の 설립(1920년)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1923년에 이르러 일괄판매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자유거래제로 전환하였다. 이상과 같은 東洋紡 제품의 독점적 취급을 전제로, 三井物産은 조선 각지 재류의 유력 일본상인과 特約販賣 관계를 맺고 있었다.³⁷⁾ 방적기업이 아닌 貿易商社 三井物産이 朝紡을 설립하기에 이른 배경에는 중국에서의 在華紡 경영의 경험(上海紡績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오랫동안의 대조선 면포수출무역의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여러 정보와 광역의 판매망을 구비하고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³⁸⁾

이상에서 1930년대의 본격적인 근대적 방직공업의 발흥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였다. 1930년대에 새롭게 진출하는 자본 주체가 다름아닌 東洋紡과 鐘紡이었다는 점도 상술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쉽게 이해될 것이다.

〈표 11〉에 나타난 것처럼, 1934년부터 1937년까지 매년 하나씩 東洋紡과 鐘紡의 신설 공장이 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동안 京城紡織의 방적부문 신설(1935년)과 朝鮮紡織의 설비확장이 실현되어 가히 기업발흥의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2〉는 이들 4社 6공장의 생산설비 규모 및 생산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생산설비는 6공장이 모두 설치된 1937년 이후로는 1945년까지 거의 확장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한편, 4社 합계의 면사, 면포생산고는 1938년에 절정에 달하고, 이후 원료 통제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고 있다. 이들 공장의 제조품종은, 면사는 19番手 이하(1935년 생산고의 90%), 면포는 粗布(동 85%)가 당초 압도적이었으나, 점차 20~40番手의 中絲와 細布 생산도 증가하며, 더 나아가 細絲나 金巾 등 품종의 高級化·多樣化가 진전중에 있었다. 다만, 1938년의 스프(Staple Fiber = 인조 섬유) 混用規則에 따라, 주로 수출용으로 한정되버린 純綿絲·純綿布의 생산은 감퇴하고, 국내용 내지 円블록

37) 稅田谷五郎 [23], p. 9 참조. 참고로 東洋紡 제품의 일괄 취급은, 三榮綿布輸出組合 시대의 15파운드 이상의 粗布에 관해서만 이었던 것 같다.

38) 朝紡 설립에 관여한 주요인물은, 野田卯太郎, 馬越恭平, 山本條太郎, 山本悌次郎, 棚瀬軍之佐, 日比谷平左衛門, 和田豐治 등이었다(鹽見常三郎 [25], p. 63). 創立時의 最大株主는 安部幸之助(약 10%소유)이었고, 初代社長에는 馬越恭平가 就任하였다. 第二代와 第四代社長은 原安三郎, 第三代는 山本條太郎이었다(『營業報告書』各次に 의함).

〈표 11〉 朝鮮 4大紡績會社의 設立狀況

朝鮮紡績釜山工場	釜山	1917	1922.4	15,200	608
京城紡績京城工場	京城	1919	1923.3	(21,600)	100
東洋紡績仁川工場	仁川	1933	1934.6	31,488	800
同 京城工場	京城	1936	1937.4	40,532	1,440
鍾淵紡績全南工場	光州	1934	1935.8	35,000	1,000
同 京城工場	京城	1935	1936.8	30,240	600

자료 : 各社社史, 朝鮮紡績은 「第六回營業報告書」.

주 : 1) 東洋紡·鍾紡의 設立年度는 工場着工年.

2) 設備規模는 操業開始當時의 것(단, 京城紡績의 紡機數는 1935年 紡績部門 新設時).

〈표 12〉 朝鮮 4大紡績會社의 綿絲·布生産高의 設備規模의 推移

1935	82,655	78,628			
1936	122,138	123,762	153,408		5,464
1937	178,634	204,857	208,712		7,554
1938	206,737	220,961	213,776		7,814
1939	177,522	183,023	214,496	30,276	7,818
1940	152,974	156,107	214,496	30,800	7,818
1945			229,440		7,863

자료 : 「綿絲紡績事情參考書」, 各次에 의해 作成. 1945년은 「朝鮮經濟統計要覽」, 1949年, p. 92.

주 : 1935年은 京紡分을 포함 안함.

용의 混紡絲·混織布 生産이 중심이 되어 갔다(조선의 방적회사는 제3국에의 수출은 거의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다음으로, 東洋紡, 鍾紡의 진출요인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同2社는 일찍부터 조선에 강고한 제품시장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굳이 자본진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³⁹⁾ 1920년대의 朝紡이나 京紡의 시장침입 때에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조선의 對內地 織物移入稅의 존재도 內地기업과 現地기업과의 경쟁조건을 크게 좌우할 정도의 장벽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원래 織物移入稅의 존속은 총독부 재정의 補填의 전지에서(그 구성비는 낮지만) 실시된 것으로서,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中小織物工場과 農村綿織物業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듯이 조선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큼의 의미는 없었다.

39) 高村直助 [41], p. 169.

따라서, 朝紡이나 京紡과의 대항관계로부터 그 진출요인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출의 기본적 동기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첫째로, 改正工場法에 따른 婦女子·年少者의 深夜業 폐지이다. 이 법은 1923년 3월에 公布되었으나, 그 시행은 關東大地震의 영향으로 1926년 7월까지 미루어져,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1929년 7월 드디어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는, 1931년의 重要産業統制法에 의한 방직업에의 통제강화이다. 內地 방직자본가에게 조선은, 이들 두 가지 법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新天地로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⁴⁰⁾ 셋째로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工場誘致이다. 1931년 6월 새 총독으로 부임한 宇垣一成은, 당시까지의 農業偏重政策에 따른 여러 모순의 타개책으로 소위 '農工併進'을 주창했다. 內地資本誘致는 이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인데,⁴¹⁾ 鐘紡의 조선진출은 바로 그 구체적 예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즉, 鐘紡의 경우 宇垣 총독에 의한 同社사장 津田信吾에의 직접적 요청이 있었으며, 1934년에 津田 스스로 직접 조선을 시찰하고 총독과 회담한 결과, 조선진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이다.⁴²⁾ 이러한 긴밀한 관계 위에 鐘紡은 그 후 다방면에서 사업 전개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鐘紡뿐 아니라 東洋紡과 大日本紡도 총독부로부터 공장설치의 권유를 받고 있다.⁴³⁾

참고로, 앞의 工場法이나 重要産業統制法의 조선에의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당시 활발히 일어났었는데, 그 배경에 총독부의 1930년대에 있어서의 조선공업화 = 內地資本誘致政策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工場法에 대해서는 1933년경부터 총독부내의 一角에서 조선에서의 제정, 실시의 필요성이 제창되어, 그를 위한 工場調査도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아마

40) 東洋紡績株式會社社史編纂室 [20], 鐘紡株式會社社史編纂室編 [37], 참조.

41) 총독부의 工場誘致 '政策'은,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요인을 알아보는데 있어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宇垣 총독은 당초 '農工併進' 방침을 주창은 했어도, '農村振興運動'과 함께 현실로 내건 구체적인 구호는, '南棉北羊', '北鮮開拓'(주로 森林개발과 南鮮過剩人口을 이동시키기 위한 農耕地開墾), '産金増産', '電力開發', '滿洲移民' 등이었고, 직접 工業部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育成政策은, 적어도 구호로서는 내걸지 않았던 것 같다(宇垣一成 [26], 참조). 따라서, 1930년대 공업화의 요인과 성격을 논하고자 할 때, 정책적 재기를 중시하려고 한다면, 막연한 방침 레벨뿐 아니라, 예를 들면 앞의 工場誘致 활동 같은 것이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計劃되고 또 광범하게 실행되었나를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의 通說의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軍需工業化'論이나 南次郎 總督期の '大陸兵站基地化'論에 있어서도 보다 實態面에 입각한 공업화의 내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42) 津田信吾는 일찍이 그가 鐘紡 澁川工場장이었던 시절부터 조선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듯하며(石黑英一 [51], p. 173), 그 이유의 하나로서 일본에서의 노임상승과 出稼女工 확보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鐘紡社史資料, 『津田信吾回顧錄』, 1946, pp. 10~11). 이런 점에서 추측컨대, 津田工場長 재임중에 발발한 대규모의 澁川工場 노동쟁의(1930년)가, 조선진출을 확장하게 된 계기였을지도 모르겠다.

43) 『東洋紡七十年史』 [5], p. 377, 『ニチボク・七十五年史』 [1], p. 220. 단, 大日本紡의 경우는, 南次郎 총독과 德積眞六郎 총독부 殖産局長으로부터 人絹 부문에의 진출을 권유받았다.

도, 그 적극적 추진 주체가 警務局 保安課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쟁의의 급증에 대한 치안대책이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되며, 또 소작쟁의 대책으로서의 1934년의 農地令 시행과도 연동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34년에는 警務局 試案과 學務局 社會課 試案이 완성되어, 동년중에는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해질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殖産局 商工課에서는 이제 막 본격화하려는 조선의 공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工場法 실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때문에 그 후로도 警務局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대립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결국 실현을 못본 채 戰時體制로 돌입해 갔던 것이다.⁴⁴⁾ 重要産業統制法의 外地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총독부는 같은 맥락에서, 즉 內地資本의 도입 촉진이라는 의도에서 극력 이를 거부하였다.⁴⁵⁾

이상에서 자본진출의 기본적 계기, 특히 그것이 시기적으로 193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의 재 사정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와 함께 조선에 있어서의 근대적 면공업 건설의 유망함을 충분히 보장하는 조선내의 객관적 제 조건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1930년대에 들어서부터 새로이 발생한 두 가지의 변화에 주목하는데 그치겠다. 즉, 하나는 1932년의 '滿洲國' 성립에 따라 광대한 면제품 시장이 조선의 인접지에 등장한 점이다. 두 번째는 宇垣 총독에 의한 대대적인 제3차 棉花增産計劃에 따른 현지에서의 대량 원면확보의 전망이 섰다는 점이다. 이 두 조건이 실현된다면, 제품판매와 원료조달의 양면에서 유통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조선에서의 공장설립은 자본의 논리상 자연스러운 추세일 것이다. 면공업에 국한되지 않고, 1930년대의 '日鮮滿블록' 경제의 형성과 그에 수반하는 새로운 분업관계의 전개 속에서 조선은 新興工業地로서 內地資本의 주목의 표적이 되었는데, 면업자본에 대한 吸引作用은 전술한 內地에서의 제약(重産法, 工場法改正)도 一助하여 한층 강하게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경제의 공업화 과정에서 섬유부문이 산업구성상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를 결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리라. 그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일본자본의 조선진출이 반드시 '軍需工業化政策'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東洋紡, 鐘紡에 이어 大日本紡도 조선에의 공장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大日本紡은, 일찍이 기업합병 전의 攝津紡續시대부터 특히 조선 면사시장에서 커다란 세어를 점유하고 있었다. 太絲부문을 중요한 하나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大日本紡에게 있

44) 工場法制定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다음 新聞記事에서 그 동향을 알 수 있다. 『朝鮮日報』 [9], 『東亞日報』 [4], 『每日申報』 [6], 『中央新聞』 [10], 『釜山日報』 [7]. 이상 신문자료는 『日帝下朝鮮關係新聞資料集成(社會運動史)』 [8]을 이용하였다.

45) 平澤照雄 [59], 참조.

어서 조선시장은 식민지기에도 여전히 긴밀한 관련하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된다. 大日本紡은, 重産法 이래 조선진출을 '전부터 企圖' 했었다고 社史에 기술되어 있는데, 東洋紡, 鐘紡의 진출에 따른 판로상실의 위기가 직접적인 계기였을 것이다. 同社는 앞의 두 회사보다 늦은 1937년 重役회의에서, 경기도 수원에 면방직공장(精紡機 42,000臺, 織機 1,000臺), 京城에 染色加工공장(月産能力 10萬反), 함경북도 청진에 人絹공장(月産能力 20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동년의 臨時資金調整法 시행에 의해 면방직공장 설립은 불허가되고 染色加工과 人絹부문에서의 진출만이 실현되었다(양공장 모두 1939년 8월 조업개시). 참고로 당시 일본에서의 염색가공업 부문은 중소기업 단체인 日本輸出綿織物工業組合聯合會 가맹의 染色工業組合의 장악하에 있어(단, 鐘紡 淀川공장은 직영의 가공 부문을 가지고 있었다), 거대 방직자본의 신규참입을 견제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방직자본에 의한 織布·加工의 一貫作業形態로의 진출이 가능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大日本紡의 京城공장은 當社 직영으로서는 최초의 加工공장이었다고 한다.⁴⁶⁾ 또한, 東洋紡 京城공장과 鐘紡 京城공장도 染色·捺染 등의 加工部를 병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大日本紡 京城공장은 臨時資金調整法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나, 1939년 1월에 발표된 「纖維工業設備의 制限에 관한件」(總督府令 第4號)에 저촉하게 되는데, “加工用 原材料로는 鮮內 및 內地 生産品을 사용하므로 輸入纖維와는 그다지 관계없음”이라는 이유에서 결국 허가되었다.⁴⁷⁾

大日本紡이 조선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바로 같은 시기의 1937년 봄, 鐘紡은 제3의 면방직공장으로 群山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⁴⁸⁾ 아마도 동일한 사정으로 인해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臨時資金調整法 시행이래 면업은 소위 平和産業이라 하여 신설을 억제당하고 -물론 전시하의 회소자원인 면화 자체도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됨-그대신 人絹, 스프(당시 구체적으로는 펄프를 원료로 한 人造毛絲를 지칭), 麻紡績 등 수입원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섬유공업 부문이 발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흥부문에 대해서는 本稿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나, 다만 면방직자본이 전시하의 면업통제하에서 다른 섬유부문에 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⁴⁹⁾ 특히 鐘紡은 섬유산업에 그치지 않고 널리 重化學工業과 鑛山業에 진출하는 등 극히 다각적인 經營體로 발전해 갔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머물겠다. 만약 전쟁으

46) 이상의 大日本紡績에 관한 서술은 『二七五 - 七十五年史』 [1] 및 『大日本紡績株式會社五十年記要』 [3]에 의함.

47) 朝鮮總督府 [30] (韓國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所藏).

48) 朝倉經濟研究所 [34], p. 174. 鐘紡 群山工場은 紡績工場이 아니고 디젤工場 건설로 전환된 것 같다 (鐘紡社史資料 [35], p. 13).

49) 일본내에 있어서도, 綿紡績資本의 기타 섬유공업(紡績設備에 관한 한)에 대한 支配力은 製絲·毛絲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컸다(池尻淺夫 [38], p. 25).

로 인한 資金調整法이 없었다던지 혹은 좀더 늦게 적용되었다더라면, 조선의 근대적 면방직업은 한층 대규모의 生産能力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930년대에 정착한 이른바 '4大紡' 체제의 유지를 통해 전시경제를 통과하여 해방을 맞게 된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일본 면업과 식민지 조선과의 다양한 관련성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대체로 종래 막연하게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조선이 수행한 역할은 중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에 유의해야 할 것은, 조선의 식민지 시장으로서의 질적 의의를 간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면제품 시장으로서는 그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려니와 독점적 가격을 유지했다는 점, 또 원면에 관해서는 양적으로는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해도 군수품으로서도 중요했던 면화의 독점적 공급지를 일본의 勢力圈內에 확보해 두는 것은 有事時에 중대한 의의를 발휘했으며,⁵⁰⁾ 나아가 식민지 노동력의 교묘한 이용도 景氣調節弁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에 본격화되는 식민지로의 자본진출은 일본 면업자본에 의한 조선의 포섭이라는 관점에서 위의 세 가지 측면을 이른바 총괄하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⁵¹⁾ 즉, 중요산업통제법에 의한 조업제한을 받지 않은 채 확대하는 조선과 '만주국' 시장을 마음껏 누렸으며, 면화중산제회와 공동판매제도를 통한 저렴한 면화의 장악, 공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력의 장시간 이용, 덧붙여 전시하의 면업통제에 있어 면업자본에 관한 한 일본에 비해 그 규제가 약했던 점 등을 통해 조선진출 일본 면업자본은 상대적으로 고이윤을 축적해 갔던 것이다. 일본 면업의 강인한 국제경쟁력과 발전조건을 고찰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식민지 경제의 역할까지도 시야에 포함시킨 더욱 치밀한 검토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⁵²⁾

50) 1933년부터 시작되는 棉作獎勵第三期計劃에 관해 총독부는 면화중산의 의의의 하나로서 '一朝有事時에 있어서의 國防的見地'를 들고 있다(朝鮮總督府農林局 [32]).

51) 물론 일본 면업자본의 현지진출에 의한 식민지 조선의 포섭 = 지배의 총괄 내지 완결이라는 것은, 冒頭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면업사 쪽에서 바라본 관점이며, 조선면업사에서 본다면 그 자본주체는 어찌되었건 적어도 기계공장제 면공업의 발전과 일본으로부터의 '지달'을 의미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조선인 면업자본이나 재래의 농촌면직물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선 면업의 구조와 전개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별도의 과제로 남겨 두기도 한다.

52) 戰前 일본 면업의 뛰어난 국제경쟁력의 재 요인을 명쾌하게 분석한 논문으로서 山崎廣明 [48]이 있는데 위와 같은 관점은 결여되어 있다.

◆ 参 考 文 献 ◆

〈研究資料〉

1. 『ニチボ 七十五年史』, 1966.
2. 『大分新聞』, 1922. 11. 30.
3. 『大日本紡績株式会社五十年記要』, 1941.
4. 『東亞日報』, 1934. 4. 11~12, 11, 10.
5. 『東洋紡七十年史』, 1955.
6. 『毎日申報』, 1934. 4. 11~12.
7. 『釜山日報』, 1936. 3. 19.
8. 『日帝下朝鮮關係新聞資料集成(社會運動史)』, 1~6卷, 永進出版社.
9. 『朝鮮日報』, 1934. 3. 12, 4. 11, 6. 3.
10. 『中央新聞』, 1934. 6. 4, 11. 10.
11. 『韓國各地日本棉布概況一斑』, 1907.
12. 京紡株式會社, 『京紡七十年』, 1989.
13. 群馬縣第三部, 『清韓視察復命書』, 1906.
14. 内外綿株式會社, 『内外綿株式會社五十年史』, 1937.
15. 大阪市社會部勞動課, 『朝鮮人勞動者の近況』, 社會部報告, 第177號, 1933.
16. 大阪市社會部調査課, 『本市に於ける朝鮮人の生活概況』, 社會部報告, 第85號, 1929.
2.
17. _____, 『本市に於ける朝鮮人住宅問題』, 社會部報告, 第120號, 1930.
18. 大阪市社會部調査課編纂, 『朝鮮人勞動者問題』, 勞動調査報告, 第27號, 弘文堂書房,
1924.
19. 東京地方職業紹介事務局, 『土工紡績績夫としての鮮人勞動者』, 1925,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2卷, 1990, アジア問題研究所.
20. 東洋紡績株式會社社史編集室, 『百年史 - 東洋紡』上・下, 1986.
21. 三原新三, 『内地市場に於ける朝鮮陸地棉の長所及短所』, 『朝鮮總督府月報』, 第5卷,
第2號, 1915.
22. 稅田谷五郎, 『朝鮮綿布史(其三)』, 『大日本紡績聯合會月報』, 第416號, 1927. 4.
23. _____, 『朝鮮綿布史(其一)』, 『大日本紡績聯合會月報』, 第414號, 1927. 2.
24. 殖産銀行, 『朝鮮紡績業の現況』, 『殖銀月報』, 第45號, 1942. 2.
25. 鹽見常三郎, 『朝鮮に於ける紡績工業の現狀(二)』, 『大日本紡績聯合會月報』, 第589

- 號, 1941. 11.
26. 宇垣一成, 『朝鮮の將來』, 1934.
 27. 日滿棉花協會朝鮮支部, 『朝鮮の棉花事情』, 1937.
 28. 日本紡績協會, 『日本紡績統計, 1903~1949』, 1951.
 29. 朝鮮紡績株式會社, 『營業報告書』, 各次.
 30. 朝鮮總督府, 『資金調整法會議書類』, 1939.
 31. _____, 『阪神・京浜地方の朝鮮人勞動者』, 1924.
 32.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棉花増産計劃』, 1933.
 33. 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 『朝鮮ニ於ケル綿布』, 1925.
 34. 朝倉經濟研究所, 『朝鮮工業經濟讀本』, 1937.
 35. 鐘紡社史資料, 『鐘淵各支店及工場並ニ其他所在地一覽表』, 1943.
 36. _____, 『津田信吾回顧録』, 1948.
 37. 鐘紡株式會社社史編纂室 編, 『鐘紡百年史』, 1988.
 38. 池尻淺夫, 『綿スフ織物中小工業の再構成』, 『大日本紡績聯合會月報』, 第585號, 1941. 7.
 39. 川合彰武, 『朝鮮工業の現段階』, 1943.
 40. 幸田祐道, 『本邦綿業の統計的研究』, 1931, 日本綿業俱樂部調查部.

〈研究論文〉

41. 高村直助, 『資本蓄積 (1) 輕工業』, 大石嘉一郎 編, 『日本帝國主義史 1』, 1985, 東京大學出版會.
42. _____, 『近代日本綿業と中國』, 1982, 東京大學出版會.
43. _____, 『日本紡績業史序説』上, 1971, はなわ書房.
44. 吉信肅, 『日本の對植民地貿易』, 小野一一郎・吉信肅 編, 『兩大戰間期のアジアと日本』, 1979, 大月書店.
45. 金贊汀, 『關釜聯絡船』, 1988, 朝日選書.
46. _____, 『朝鮮人女工のうた - 1930年 岸和田紡績爭議』, 1982, 岩波新書.
47. 方鮮姬・金贊汀, 『風の慟哭 - 在日朝鮮人女工の生活と歴史』, 1977, たはた書店.
48. 山崎廣明, 『日本綿業構造論序説 - 日本綿業の發展條件に関する一試論 - 』, 『經營志林』, 第5卷, 第3號, 1968.
49. 山田盛太郎, 『日本資本主義分析』, 1934, 岩波書店.
50. 西川博史, 『日本帝國主義と綿業』, 1987, ミネルヴァ書房.
51. 石黒英, 『大河 - 津田信吾傳 - 』, 1960, ダイヤモンド社.

52. 小澤有作 編,『近代民衆の記録 10・在日朝鮮人』,1978,新人物往來社.
53. 阿部武司,『日本における産地綿織物業の展開』,1989,東京大學出版會.
54.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在日朝鮮人史研究』,各號.
55. 佐佐木信,“1920年代における在阪朝鮮人の労働 = 生活過程 - 東成・集住地區を中心に -”,杉原薫・玉井金五 編,『大正・大阪・スラム - 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 -』,1986,新評論.
56. 楫西光速 編,『現代日本産業發達史 XI 纖維』上,1964,交詢社.
57. 村上勝彦,“植民地”,大石嘉一郎 編,『日本産業革命の研究』上,1977,東京大學出版會.
58. 澤村東平,『近代朝鮮の棉作綿業』,1985,未來社.
59. 平澤照雄,“1930年代の統制政策と植民地問題”,近代日本研究會,『經濟政策と産業』,1991,山川出版社.
60. 戸塚秀夫,“日本における外國人労働者問題について”,『社會科學研究』,第25卷,第5號,1974,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